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조의호입니다.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도 특색사업으로 먹는샘물 개발 사업 제안하고자 하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수행한 물관련 사업 중
성공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사업을 꼽으라면,
아마 이 두 지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아리수와 제주도의 삼다수죠.
두 사례는 대 내외적으로 너무나 크게 성공했고,
서울시와 제주도는 물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안서 보자마자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DMZ 물 개발은 2013년에도,
그리고 작년 공무원 제안 발표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DMZ 청정수라고 해서 이미 예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군인공제회가 개발했고, 롯데칠성에서 음료를 판매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 판매량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안나옵니다.
이름도 DMZ맑은샘물로 바뀌어서 다시 찾아봤는데,
가격비교 중지 상품이라고 뜨네요.

분명 수원지 정보가 저는 낮이 익거든요.
연천군 백학면,
작년 혼합음료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원지 정보를 정리할

때,
눈에 자주 보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황을 찾아봤는데,

작년 23년 기사입니다.
롯데 칠성에서 DMZ와 관련한 제품을
모두 아이시스로 명칭을 통합했다고 합니다.
분명 DMZ물이라는 상징성과 상품성의 가치를 보고
사업을 추진했을텐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서의 상품 가치가 부족했는
지
DMZ물 상품 판매가 중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하고 청정한’ 상징성은 계승하되, 상품성을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경기도 먹는샘물 개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
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
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있고
총 16곳 중 15곳이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수가 정말 많은데, 이것 보시고 업체가 많으니까
제품수도 많겠지? 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1차원적인 접근입니
다.

업체는 많지만 이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같은 수원지인데 가격은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썩썩한 이야기죠.

왜 업체가 많을까요?
지하수 부존량을 보시면 경기도는 꽤 많은 지하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데, 제주보다 많고, 수도권인 서울, 인천과 비
교하면 정말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어디에 많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영세하지만 업체도 많고, 물도 많고, 수도권 시장 접근성도 좋
고
네. 경기도는 관심있게 보지 않았을 뿐, 먹는샘물 시장에서 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물은 유명한 제품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분석한 결과인데요.

우선, 미네랄 함유량 자체가 좋은 물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수원지가 경기도인 제품의 미네랄 성분과 화산수로 만들어진 백산수, 삼다수 분석결과를 보면, 경기도 먹는샘물의 미네랄 성분이 화산수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습니다.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유럽과 비교하면

화강암 지반의 경기도 물의 미네랄 성분은 이 그래프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외국 수입물과 비교하여 미네랄함량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히든카드는 바로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현재 먹는샘물 시장규모는 2조원이고, 제주 삼다수, 롯데 아이시스, 농심 백산수가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삼다수는 점유율 42.8%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삼다수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삼다수가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선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편해서의 이유가 65%

삼다수를 마시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뛰어난 품질을 신뢰해서”라고 합니다.

삼다수는 먹는 샘물 시장에서 25년간 압도적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42.8%, 전국 소매점 취급률 98%, 21개국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등으로 자리매김 한 데에는 앞선 시장조사의 결과처럼 소비자들에게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물”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취수원 주변의 축구장 100개 규모의 토지를 매입 관리함으로써 오염을 방지하고, 한라산 단일 수원지를 소유함으로써 안정적인 물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부터는 업계 최초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역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물을 삼다수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토양, 대기와 관련하여 수십년 전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온 오염에 선제적 대응과 먹는 물 품질관리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먹는샘물은 삼다수 이상으로 안전한 물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토양분야에서 2년 연속 국제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하수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다수는 올해 포함하여 3년 차지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분야에서 올해까지 포함하면 9년 연속 국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고, 국내에서는 환경부 주관 평가에서 28년 연속 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5년 삼다수 역사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28년간 먹는물 분야에서 최고의 기관임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경기도는 풍부한 지하수 자원, 수도권 시장 접근성, 영세하지만 많은 제조업체,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가진 원수 등 다른 지자체가 접근할 수 없는 조건 4개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뛰어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연구기관과 최고의 역량을 갖췄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가장 마지막에 어렵게 구한 스톤이 바로 마인드 스톤입니다.

저희 경기도도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경기도가 가진 역량과 조건을 하나로 결속시킬 결속력과 추진력이 있다면 이는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먹는샘물이 갖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은 곧 상품성이자,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삼다수, 서울시의 아리수처럼 경기도 물의 상징성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많은 실국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생산, 유통, 품질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생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기관을 공모하고, 심사와 평가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경기도는 시설, 공정개선비를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합니다.

경기도에 많은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경기도 주식회사라고 해서 경기도 제품을 직접 판매

하는 기능을 가진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유통과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여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담할 것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먹는샘물 품질관리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물이 많다는 기사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원수와 생산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과 경기도가 시설개선 투자를 진행하여 공정을 개선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 센터에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안전한 물이라는 상품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PET병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한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품질관리 센터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토지를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 점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오염 위협이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먹는물검사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지만, 안전한 경기도 먹는샘물을 위해 이러한 위험인자를 수시, 집중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품질관리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 팀이 수행한 연구결과인데 미네랄 라벨표시 기준과 실제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제품이 상당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리를 위해 생산 제품 QR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서 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여신 후 QR코드를 촬영해보시면 좋겠네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진행에 있어 북부만의 특색사업, 다른 지자체는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키울수 있고, 물 산업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쇄신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센터 설립을 통해 “부” 규모의 조직을 증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